

[북 스]

인간 삶과 밀접한 종이의 탄생과 진화

어린이 책꽂이



▲우정-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국인의 지혜="기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 소외받고 외로운 아이들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던 동화작가 고정욱씨의 신작. 장보고, 이성계, 화랑 사다할 등 우정과 관련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열편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했다. (미래아이·9천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엄마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아무 조건도 없고 영원히 끝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아이가 배속에 있을때부터 시작되었다. 뮤스 크리스티 아동문학상을 받은 캐나다 작가의 최신작이다. (시공주니어·7천500원)



▲뭉치가 다룬대?="우리나라 좋은 동시문학상"을 받았고 광주대 문창과에서 아동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성자씨의 새책, 서로 배려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는 꽃밭같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제의 이야기 여섯편을 엮었다. (문원·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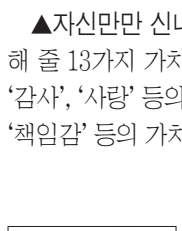
▲빨강도깨비야, 세포가 궁금해=코끼리와 생쥐, 무엇이 똑같은가? 책은 호기심 많은 주인공 진석이 빨강 도깨비를 만나 세포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우리의 몸을 이해하고, 유전의 비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다. (토도북·9천원)



▲사라진 악보=각종 음악부호의 개념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어울림과 성실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입어친씨의 창작동화. 노래 아저씨를 해마다 봄이 되면 새 노래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그러던 중 노래 아저씨를 돌던 음표와 음표 형제가 패를 갈라 다루기 시작하는데... (해와나무·6천원)



▲깨어난 고양이의 결심="책 먹는 여우"를 쓴 독일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 의 최신작이다. 온종일 의욕 없이 소파에서 뭉구는 것이 일상의 고양이 핑퐁이에게 어느날 벼룩이 옮겨 붙는다. 핑퐁이는 벼룩을 떼어내기 위해 바깥나들이를 시작하고 여러 유쾌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주니어김영사·8천500원)



▲자식만만 신나는 가치학교=어린이의 생활을 신나고 풍성하게 해 줄 13가지 가치 이야기를 담은 그림동화집. '배려', '나눔', '예의', '감사', '사랑' 등의 가치 이야기를 실었다. 또 '자신감', '용기', '끈기', '책임감' 등의 가치를 통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발전하도록 이끈다. (아이즐북스·9천500원)



▲행복한 어린이날=스웨덴 출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그림동화책. 어린이날에 일어나는 소동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솔직하고도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사랑스럽게 담았다. 아이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엉뚱한 놀이들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문학과학사·8천원)

페이퍼로드 기행

편일평 지음



디지털 등 기록 수단이 발달하면서 종이의 종말을 내다봤던 미래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보편화된 뒤 종이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내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은 180kg로 전년(173kg)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책, 메일이나 온라인 접속은 늘어났지만 종이를 통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근본적인 생활방식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MBC PD와 기자를 거친 편일평 전 MBC프로덕션 사장의 신간 '페이퍼로드 기행'은 종이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소개한다. 한나라 채륜의 종이 발명을 시작으로 중국의 제지술이 중앙아시아, 터키,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과정을 전한다.



'페이퍼로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이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담았다. 사진은 페이퍼로드의 중요한 교역로였던 둔황 가는 길.

비단길을 통해 동서양의 문물을 교환했듯, 종이도 전파된 '페이퍼로드'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 뤼양에 살던 채륜이 105년 황실의 후원으로 종이를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 뤼양은 후한의 명장 등우의 손녀인 황후 등영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나무껍질의 섬유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어낸다. 또 한나라 때 질 낮은 누에고치의 섬유소에서 얇은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紙'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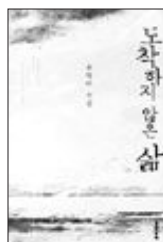
페이퍼로드는 뤼양에서 출발해 중국 창안에서 실크로드와 만난다. 종이는 동서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통해 라자우, 둔황, 타클라마칸 사막 등지를 건너 아랍과 유럽에 전달되게 된다. 한국을 거쳐 일본 등지로도 제지술이 전달된다. 종이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발달을 거듭한다. 원료는 면과 대마 등을 주로 사용했다. 종이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물에 담갔다가 두들기는 방법, 소비자의 쓰임새를 고려해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 인쇄를 고려한 압축 농도, 다양한 색

의 조화 등이 연구되고 있다. 저자는 종이의 탄생과 진화, 전파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유물과 역사 등을 곁들여 소개한다. 또 한국의 제지술을 집중 조명한다. 최초의 색지를 만든 조선 한지 이야기를 비롯해 영남 전통한지의 요람인 의령한지마을, 한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주한지박물관 등을 소개한다. (MBC프로덕션·1만8천원) /공평기자 kroh@kwangju.co.kr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통찰

도착하지 않는 삶

최영미 지음



1994년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집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최영미(48)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도착하지 않는 삶'을 냈다. 2005년 '돼지들에게' 이후 4년 만이다. 무모할 정도로 솔직한 시어들로, 시인 자신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도발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녀야 했던 시인인 이번 시집에서도 그 "신선한 무모함"으로 삶을 통찰한다. 사회의 변화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쏟아내는 언어들은 신선하면서도 도시인들의 고독이 배어나온다. 시대의 깊은 상처와 일상이 교차돼 선 굵은 시어로 다시 태어났다.

"아침에 빠져나온 잠자리를/밤에 들어갔을 뿐인데/여정의 끝이 보이네/떠나기만 하고 도착하지 않는 삶/여기에서 저기로/이 남자에게 저 여자로 옮기며/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젊음/후회할 시간도 모자라네"(여기에서 저기로 중)

한 구절을 뽑아 시집 제목으로 삼은 표제작 '여기에서 저기로' 같은 시에 불행이 갈랐던 1980년대에 청춘을 저항했었던 한 여성이, 시너브로 덕친 중년이라는 시간대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공허감이 짙게 묻어난다.

(문학동네·7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미 음악 거장들의 이야기

라틴 소울

박완서 지음



아마도 소수의 팬들이 즐겨 들던 라틴 음악에 많은 사랑을 끌어들이던 건 '부에노스 아이레스 클럽' 덕이었던 것이다. 쿠바의 할아버지·할머니 음악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작품 속 음악은 영·미 팝에 익숙해 있던 많은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줬다. 가수 윤상, 김동률 노래 작사가이자 EBS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음악기행' DJ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서가 라틴 음악 길잡이 '라틴 소울'을 펴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출간된 '본격 라틴 음악 안내서'임과 동시에 음악을 사랑하는 이의 에세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브라질과 쿠바와 아르헨티나 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화려한 카니발과 댄스 없는 브라질의 다채로운 음악과 우리에게도 친숙한 보사노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한 톨인 탱고와 거장 피아졸라 그리고 쿠바의 음악까지다.

특히 '보사노바의 신'으로 불리는 조앙 질베르트 공연 현장을 담은 부분은 한평생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다. 노래를 부르다 '20분'간 무대 위에서 침묵한 후 다시 공연을 이어가는 70세의 거장의 모습은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비디출판사·2만2천원)

/김미은기자 kemim@kwangju.co.kr

가슴 뭉클한 성장동화

이 세상에 태어나길 ...

박완서 지음



우리 시대 대표 소설가 박완서(78) 씨가 어린이들을 위한 가슴 뭉클한 성장동화 한 편을 내놓았다.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초등학교 5학년 복동이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동화다. 복동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 돌아가지고, 아버지마저 떠나버린 후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이모와 외할머니의 품에서 자란다.

부모 없이도 외할머니와 이모의 큰 사랑과 단짝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 복동이는 구김살 없는 밝은 아이로 자라지만 어릴 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려온 아버지가 무성하게 지어준 이름을 생각하면 조금 슬퍼하기도 한다.

그러던 중 복동이는 방학을 맞아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 아버지와는 첫 대면이 설법 법도 하지만 복동이는 필리핀계 새엄마와 이복동생 테니스, 에리스로 이뤄진 새로운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 걸들기만 한다.

박씨는 작가의 말에서 "아이들이 자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의 생명의 가치도 존중할 줄 아는 편견 없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감사하며 신나게 사는 것"이 이 이야기를 꾸민 욕심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작가정신·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11 (주)국민법률경제대					광주, 전남지역 경매					·062)364-8700 ·010-4608-3700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경·공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강영희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서구	소매점	이원동	105	8천7백5십	8천7백5십	소매점	양동	435	8만6천	8만6천	소매점	양동	435	8만6천
	점주실	대우테크빌	82	8천2백5십	8천2백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한국	89	8천5백5십	5천9백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금호시원	89	5천9백5십	3천9백2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남양테크	139	1만2천8백	1만2천8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금호제일	112	1만5천5백	1만5천5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56	6천5백5십	4천5백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79	8천1백	8천1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05	1만3천3백	1만3천3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1천7십	1만1천7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09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동구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점주실	대우테크	112	1만4천8백5십	9만4천5십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2만3천2백	점주실	양동	233	6만5천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시 최저금리 대출(일선)잔금부족시·평도(이사)